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청춘 출판

참가단체 내달 2일까지 모집

익산시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 댄스 페스티벌'을 연다

이를 위해 시는 참가단체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재)익산문화재단 주관으로 청춘들의 숨겨진 끼를 문화예술을 통해 건전하고 활발하게 발산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이며, 팀원의 과반수가 전북지역 내 도민으로 구성된 단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 상금 400만원이 걸려있는 이 행사는 연출(주제에 맞는 안무 구성 및 연출력), 창

의성(청춘에 대한 재치 있는 해석 및 아이디어), 공감도(현장 관람객 호응도)를 심사 기준으로 종합대상 1팀,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각 1팀, 인기상 각 3팀을 선발한다.

특히, 청춘 댄스 페스티벌과 함께 익산 청년 협동조합 청년들이 '팔복대첩'이라는 타이틀로 고민 자판기, 어른들 놀이터, 포토존, 푸드트럭 등을 함께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익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70-5176-1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건전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청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매'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

"크레딧에 김청기 감독 표시... 저작권 귀속"

한국 최초 우주공상 과학영화인 '우리매' 시리즈를 만든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별인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운)는 우리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2년 2월경부터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리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리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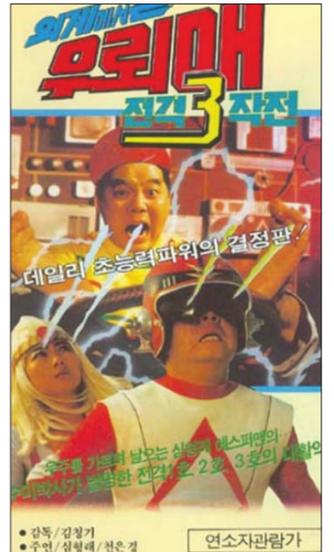
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편의 우리매 시리즈를 추가로 제작했다.

김 전 대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만든 우리매 시리즈 6편은 업무상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편을 제외한 나머지 2편도 앞선 시리즈와 유사하므로 김 감독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감독은 저작물 공표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



있다"며 "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리매를 제작·감독한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전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신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제2도약' 시동

글로벌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성업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레진 측은 "서비스 5주년을 맞아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사총괄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013년 레진엔터테인먼트 창립 멤버로, 그간 레진코믹스 국내의 사업 전반을 이끄는 사업총괄 이사를 맡아 왔다. 그동안 국내 사업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사업을 이끌며 레진코믹스가 글로벌 웹툰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레진 합류 이전에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에서 서비스 기획 및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이성업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한희성 전 대표는 이사회 의장 직을 수행하며 영화산업에서 레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업 신임 대표는 "회사와 서비스의 신속한 개선과 변화를 도모해 웹툰 시장 및 국내 웹툰의 해외수출 기반 확대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신임 대표이사.

문체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위한 공청회 오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오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

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을 추천받았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주시가 기념일을 신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기념일 4개를 설명하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념일 신청안과 공청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념일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첫 발걸음

우선협상대상자 '둘레'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 추진하는 정읍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가 지난 12일 열렸다.

16일 시에 따르면 "심사결과 '(사)둘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고 밝혔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사업은 지역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와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5년간 총 37.5억원(연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문화 격차 해소', '문화 역량 강화', '문화 발굴 창조' 등의 세 분야를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 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 열린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사업자 공모선정 2차 PT 심사에는 (사)둘레 등 2곳의 접수 단체가 공모 심사에 참여했다. 공모 자격은 정읍시내 단체로 최근 3년 내 1억 이상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사)둘레에서는 시민들에게 사업을 공모하여 시행할 '상상마당 후'와 문화예술이카테미인 '드루와 예술화당' 등 문화예술 관련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시에서는 2018년 3월 문화특화 지역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에 사업자 공모공고를 과정을 거쳐 이달에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둘레는 시와 협상을 거쳐 문화특화지역 보조 사업을 확정하고 11월 중 본격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읍시는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신청으로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S.J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